

## 소리와 이미지의 번역 - TV 뉴스 번역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 지 연  
(이대 통역대학원)

### 1. 서론

####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지난 90대 중반부터 영상 매체의 종류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수입 되는 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외국 프로그램들은 3개 공중파 방송 뿐 아니라 30개가 넘는 케이블 방송, KBS의 위성 방송 2개, 그리고 지역 민방에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고 있다. 게다가 영화 시장의 개방으로 수많은 외국 영화가 쏟아지고 영화 전문지가 수십여 종이 넘을 정도이며,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책보다는 귀로 듣는 오디오북이 등장해 바쁜 현대인과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다매체 시대(multi-media age)에 진입해있고, 이에 따른 번역의 시장 요구 변화에 맞춰 번역 형태도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장 수요에 맞춰 번역 형태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 환경까지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다. 즉, 과거의 읽고 쓰는 평면적 차원의 언어 연구에서 멀티미디어, 즉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 CD-ROM, 오디오 북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문자를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삼던 과거와 달리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반한 정보가 TV와 인터넷 보급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번역물 역시 문학 서적이거나 에세이 같은 인쇄물 못지않게 영상물 번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번역학의 흐름도 서서히 그 대세에 부응하고 있다.

## 1.2.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정의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변모해가는 번역 현상을 설명할 구체적 이론적 바탕이 미진한 결과,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 힘을 실어가고 있는 멀티미디어 번역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용어조차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명칭조차 영상번역, 방송번역, 방송통역, 매체번역 등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이 혼재하는 용어를 아우르는 용어가 있다면 바로 문자와 소리, 영상이 동반되는 멀티미디어 텍스트일 것이다. 셔틀워스(Shuttleworth)와 코우이(Cowie)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란 라이스(Reiss)의 기본 텍스트 유형, 즉 표현, 정보, 작용 텍스트를 보완하는 부차적 텍스트 유형으로 사용한 용어로,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카테고리에는 음성 콘텐츠가 다른 미디어의 요소로 보완되는 텍스트가 포함된다고 정의했다.(셔틀워스와 코우이 109-110) 노래와 만화, 연극, 라디오, TV 방송이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따라서 번역가는 각자의 매체에서 부합하는 원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한다.

문자로 돼있는 텍스트를 문자로 번역하기는 것(문자 텍스트->문자 텍스트) 이외에 영상을 보고 듣고 하는 번역(오디오비디오 텍스트 -> 문자 텍스트), 거기서 번역에 더빙 혹은 보이스-오버(번역된 문자 텍스트 -> 오디오텍스트) 까지 한다면 또 한 번의 매체의 변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막이나 서브타이틀처럼 마지막 단계가 오디오 텍스트가 아닌 비디오 텍스트(번역된 문자 텍스트 -> 자막 텍스트)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 중간의 문자 텍스트로의 중

간 변환작업 없이 비디오와 오디오 텍스트에서 즉시 목표언어 TL의 오디오 텍스트로 번역(오디오비디오텍스트 -> 오디오 텍스트)된다면 이것이 방송 동시통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이 오디오 혹은 비디오 텍스트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빙 혹은 보이스-오버를 누가 하느냐, 자막처리를 하느냐 따라 명칭도 제각각이다. 번역자 자신일 경우에는 방송 통역 (YTN 위성통역, KBS 위성번역), 성우를 기용할 때는 방송 번역, 여기에는 케이블 TV와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해외 다큐물이 포함된다. 자막처리를 할 경우에는 영상 번역이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개봉 영화 및 비디오, 기타 TV 영상물의 인서트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전달 매체가 다르다고 통칭하여 매체 번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도 정확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1.3.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종류

외국 프로그램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시청자에게 전달되려면 어떤 매체를 통하든 필히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책, 잡지, 라디오 전파 등 다른 전달 매체의 역할도 활발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은 영상 매체를 꼽을 수 있다.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에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화면은 그 전달 효과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충격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 외신뉴스, 케이블 TV의 시트콤이나 드라마 번역, 만화영화, 항공기 기내 방송용 다큐멘터리, 아리랑 TV의 한국 드라마 영, 중, 일어 번역, 기업기관 홍보용 비디오 및 CD롬 번역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폭발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자 실제로 많은 번역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영화와 드라마이다. 실제로 극장용 및 KBS, MBC, SBS, OCN 등 방송용 외화의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제공된다. 그러나 반드시 비디오 참고를 필요로 한다. 문자와 소리와 음향, 분위기 등이 다면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종합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스크립트와 일치하지 않는 대사와 빠진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 오디오 텍스트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자 텍스트

의 번역과는 다른 번역 전략과 기술이 요구된다. 다양한 영상 번역 지침서가 나와 있고, 거기서 요구되는 번역 전략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지만, 뉴마크(Newmark)의 텍스트 유형 분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표현적 텍스트를 영화, 드라마로 분류하면, 정보적 텍스트에는 TV 뉴스와 다큐멘터리가 포함되고, 홍보성 텍스트에는 각종 광고나 홍보 영상물이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번역, 미디어 번역하면 대표적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떠올리지만 그 외에 국내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번역 활동도 못지않게 활발하다.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외국 뮤지컬이 내한 공연하는 경우에서 영한 번역이 자막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관객들의 번역품질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이 외국어로 번역돼 수출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일례로, 외국에 수출되는 국내 대표 뮤지컬 ‘명성황후’도 초연 이래 10년간 끊임없이 자막을 수정해 오고 있지만, 거처하는 곳이 동쪽이라 붙여진 왕세자, 황세자를 일컫는 ‘동궁’의 올바른 영어번역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sup>1)</sup>. 소리와 영상을 동반하는 멀티미디어 번역의 수요와 시장이 확장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2. 멀티미디어 텍스트 번역 전략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텍스트 중에서 TV 뉴스 번역에 초점을 맞춰 소리와 이미지가 동반되는 ST의 번역이 활자화된 문자 텍스트와의 번역 전략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전달 미디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번역 과정의 차이, 특히 소리를 번역할 때의 번역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외국 뉴스나 다큐물을 번역해 방송하는 결과물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더빙과 보이스오버, 전체 자막 번역과 부분 자막 번역이다. 더빙

---

1) 서울신문 2008년 1월 5일자 “센스있는 자막 한 줄, 뮤지컬 불 맞 나네~”기사 참조

과 보이스오버의 경우에는 ST 사운드를 완전히 없애느냐, 아니면 소리를 줄여서 그 위에 덧입히는 방식이냐의 차이를 보일 뿐, 소리를 번역해 소리로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번역 전략 역시 동일하다. 반면, 자막 번역의 경우엔 ST 사운드 위에 자막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ST의 소리를 번역하지만, 소리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여기서 소리의 번역이라 하면 소리로 전달되는 ST를 번역함을 의미하고, TT가 소리인지 문자인지에 따라 구사하는 번역 전략이 달라진다. 마지막 종류의 부분 자막 번역은 나레이션과 기자 리포팅 부분만 더빙이나 보이스오버를 하고, 전문가나 관련자 인터뷰 내용만 자막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TT의 일부가 소리로, 일부는 문자로 번역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번역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소리에서 소리로 번역, 여기에는 더빙과 보이스오버, 부분 자막이 포함되고, 소리에서 문자로의 번역에는 전체 자막 번역과 부분 자막 번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의 번역, 그중에서도 TV 뉴스에 초점을 맞춰 TT로 번역돼 더빙 혹은 보이스오버로 전달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어떤 번역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1. 배경지식(Knowledgeability)

TV 뉴스를 더빙과 보이스 오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ST의 장르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즉, 번역가가 뉴스 시청자들의 지적 수준과 이해도를 고려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Grice의 협력의 원칙<sup>2)</sup>에 따라 뉴스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용인되는 수준의 정보량을 침묵하는 것이 TV 뉴스 번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소리를 듣고 번역할 때 번역가가 청취력이 약한 경우, 문맥 파악을 못하거나, 특정 고유명사를 듣지 못해 오역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

2) 그라이스(1975)의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 방식에 관한 것으로, 협력적인 결과를 조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라이스는 협력원칙을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s), 그리고 방법(manner)의 네 가지 격률(maxim)로 제안하면서, 네 가지 격률을 다시 아홉 개의 하부 격률로 세분화하고 있다.

기 마련이다. 그런 실수와 정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배경지식과 정보 검색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고유명사와 속담, 관용표현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아야 듣고 하는 번역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로 알려진 고유명사의 발음이나 표현이 전혀 다를 경우에, 이를 올바르게 알아내 문맥 안에 제대로 풀어내는 것은 번역가의 청취력과 배경지식에 달렸다. 소리의 번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사상식과 고유명사, 그리고 속담, 관용 표현을 듣고,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 그것이 소리 번역의 최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1.1. 시사상식

그럼 여기서 사례 연구를 통해 ST의 오디오 텍스트에 사용된 시사상식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들었을 때 번역가가 할 수 있는 오역과 실수를 몇 가지 짚어보고, 적절한 번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Now, Obama is not the only one taking Clinton to test for those phone call advertisements. (출처: 2008, 3, 18 CNN International News)

여기서 the phone call ad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 얼마 전 힐러리 후보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국가적 안보위기를 강조한 비상전화 광고전으로 연패의 늪에서 탈출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바 있다. 당시 광고는 잠들어 있는 어린이 모습을 보여주고 전화 벨이 계속 울리면 나레이터가 나와 “당신의 투표가 전화에 답할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라며 “누가 새벽 3시에 이 전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힐러리가 누구보다 국가적인 비상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임을 부각시켰었다. 이런 배경지식이 없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ST로만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 직역을 한다면 더더욱 미국의 대선 과정에 관심이 없는 TT 시청자들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힐러리 미 대선 후보의 일명 새벽 3시 전화 광고’로 번역됐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본다.

Tony Blair was showered with gifts throughout his year as Britain's Prime Minister, and when he left Downing Street he left the host of toys, treasures and trinkets behind. As Robin Okley tells us Blair's successor seems to think a clean sweep is much needed at No.10. (출처: 2008, 1, 14 CNN International News)

Downing Street<sup>3)</sup>는 영국 관청가로, 외무부와 내무부 등이 있고, 10번지에는 총리관저, 11번지에는 재무장관 관저가 있다. 영국의 근대 내각제도가 확립된 18세기부터 줄곧 총리관저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다우닝가는 영국정부의 대명사로도 사용되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로의 하나이기도 하다. No.10은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영국 총리 관저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리를 번역해 더빙이나 보이스오버, 자막 처리를 할 때도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주석을 달 수 없다는 텍스트 특성 상 ‘영국 총리 공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 2.1.2. 고유명사와 관용표현

멀티미디어 텍스트에서 소리 텍스트에서 고유명사를 잡아내는 것은 번역가의 청취력과 더불어 검색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소리나는 대로 단어를 검색해 주제에 맞는 용어를 찾아낸 후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어 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것도 번역가의 임무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자.

Asashoryu is the 350 pound grand champion of Japan's national sport...crowned the title "Yokozuna." (출처 ; 2007,12,5 CNN International News)

일본에서는 해마다 6가지 대규모 스모 선구권 대회가 열리며, 제 1인자를 요코즈나[横綱]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본 전통 스포츠, 스모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번역가는 ‘야커즈너’라는 소리만으로 스펠을 찾아서 검색을 해야 한다. ‘yakozena’, ‘yokerzuner’ 등 다양한 철자 조합을 찾아 검색을 하다가 yokozuna

3) 다우닝가라는 명칭은 왕정복고(王政復古)의 공신 G.다우닝(1623~1684)이 이 지역에 건물을 지어 재무부에 대여한 데서 유래한다.

라는 올바른 표기를 찾으면, 이것이 무슨 대회 이름인지, 타이틀인지를 찾아 정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는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찾아 번역해야 한다. TT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요꼬주나'라고 표기한다면 그것역시 틀린 번역이 된다.

고유명사 외에 소리 번역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바로 익숙하지 않은 속어와 관용표현이다. 문자 텍스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문자는 표현을 보고 찾아볼 수 있지만 소리 텍스트는 들을 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의 청취가 어려워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31일자 CNN International News에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간 커피 전쟁'이란 기사 중,

A little guy like "the Mud Truck" in New York's East Village with a recipe from grandma. Some Mud lovers are telling McDonalds, 'Here's Mud in your eye!'

Here's mud in your eye는 일반적으로 '건배!'란 표현의 관용표현이지만, 여기서 the MUD Truck이라는 영세 커피업체를 즐겨찾는 고객이 대형 소매업체 맥도날드에서 파는 커피에 대해 비유적으로 사용해 'MUD'가 이중적 의미로 강조돼 쓰였다. 따라서 이런 배경지식과 관용표현을 알고 있다면, 외연된 의미를 찾아 내포된 의미까지 고려해 번역하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본다.

He's been amazed at how the cameras have transformed his job. Less paperwork, more time on the beat? (출처: 2007. 9. 5 CNN International News)

위 기사는 영국 경찰이 범죄 행위 현장을 포착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순찰모에 장착된 카메라, 일명 '바비캠' 도입에 관한 기사이다. 여기서 he는 영국 경찰이고 첨단 기술 덕분에 '서류업무는 줄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순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beat에는 고동소리, 비트, 리듬 등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순찰구역이란 뜻이 있어 on the beat 하면 '담당 구역을 순찰하다'라는 관용표현이 된다.

December-May romances have been media cat-nip for years. Real life cougars like Demi Moore populate the tabloids. As well as celluloid cougars- (출처: 2008,2,22 CNN International News)

위의 예문은 <재력 있는 연상녀와 무일푼 연하남간의 데이트 증가 추세>라는 제목의 CNN 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December-May romance’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 간의 사랑, 즉 여기서의 경우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을 의미하고, ‘media cat-nip’은 언론의 ‘단골소재’가 돼왔고 번역됐다. celluloid cougars에서 celluloid는 영화필름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영화화’ 됐음을 뜻하고, ‘cougar’<sup>4)</sup>는 퓨마와 닮은 동물 ‘쿠거’가 아니라 2,3십대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3,4십대 연상녀를 지칭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지식을 갖거나, 정확한 단어를 듣고 검색하는 능력이 없다면 전혀 엉뚱한 번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소리 텍스트의 경우, 청취력과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 정확한 의미를 짚어 내는 번역자의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 2.2. 이해력(Understandability)

보그란테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텍스트성을 심층결속(coherence), 표층결속(cohesion),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ity) 등의 일곱 가지로 설명한다. 일곱 가지 중 ‘심층결속성’과 ‘표층결속성’은 ‘응집성’과 ‘통일성’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보그란테와 드레슬러가 제시한 6가지 요소는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모두 중요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층결속성

4) Cougar refers to an older woman, usually in her 30s-40s, who sexually pursues younger men in their 20s or early 30s. Term used by TV series 30 Rock (episode "Cougars"), How I Met Your Mother (episode "Aldrin Justice"), Supernatural (episode "Red Sky at Morning"), the NBC reality TV show Age of Love, iPod and One Tree Hill. On film, it was used in 2004's National Lampoon's Going the Distance and in 2007's Ocean's Thirteen. The 2007 film Cougar Club was dedicated to the subject - its plot was about two males creating a club where parties are thrown where male members get the chance to meet and have sexual encounters with "cougars". (Reference: Wikipedia)

과 심층결속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먼저, 표층결속성은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나는 넘어졌다. 그러므로 다쳤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기제)를 통해 두 문장은 ‘표면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 심층결속성은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간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하며, 응집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의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나는 넘어졌다. 다쳤다.’에서 두 문장을 통해 청자는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의미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유추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 텍스트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속성은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장치로, 멀티미디어 텍스트에서도 문장의 결속성과 주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 2.2.1. 표층결속

표층적 결속구조를 유지하는데 번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ST에 사용된 다양한 지시명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일한 지시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TT로 번역할 때 동일하고 일관되게 표현해, 주제의 일관성과 논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과 2-3분간의 짧은 시간에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뉴스의 경우, 전하고자 하는 정보와 사실을 분명하고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하고, 그런 정보의 일관성과 응집성을 유지하는 번역 장치가 바로 결속구조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ST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시 명사나 대명사가 TT로 번역될 때 어떻게 결속구조를 유지하면서 번역되는지를 살펴본다.

With labor so cheap, making headgear for retailers like Wal-Mart was a no-brainer for factory owner Philip Cheng. But soon this Taiwanese businessman may be making goods for his customers from an entirely different country...Cheng's company has 17 factories here in China. (출처: 2008. 4. 3 CNN International News)

ST의 Phillip Cheng과 this Taiwanese businessman, Cheng's company는 각

각 필립 쉐, 대만 출신 기업인 쉐 씨, 쉐 씨로 번역돼 다른 용어로 표현된 지시 명사나 무생물 주어를 일관적으로 쉐 씨로 번역함으로써 표층적인 결속장치를 마련해 통일성을 기했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번역사례는, 국가의 수도로 국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n Pakistan, several blockbusters produced by the Indian film industry known as Bollywood have been screened in recent months after Islamabad lifted a ban on films shot in India earlier this year. The ban was imposed in 1965 after the rivals fought a war. (출처:2008. 4. 4 Voice of America).

위의 예문은 정치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파키스탄과 인도가 영화를 시작으로 문화 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주제의 2008년 4월 4일자 Voice of America의 뉴스에서 발췌한 것으로, 수도로 그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예가 나와있다. “Seoul and Washington agreed...”의 서울과 워싱턴처럼 잘 알려진 지명이 아니라면 ‘Islamabad’가 파키스탄의 수도라는 것을 모르는 TT 독자들에게 이슬라마바드로 번역했다가는 혼돈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텍스트의 결속성을 높이는 기제로 일관성있게 ‘파키스탄’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 전략이다. 이처럼 ST 뉴스 텍스트를 번역할 때 결속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주어를 통일해서 번역하는 전략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사람 이름이나 직함의 경우에도, ST의 다양한 표현을 통일감있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 텍스트에서보다 소리 텍스트에서 더욱 중요하다. 문자는 책장을 넘기거나 되짚어 볼 수 있지만 소리는 듣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적인 주체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데 유용하다. 그 일례로 지난 2007년 12월 3일 CNN International News의 ‘Ashley Judd and AIDS’라는 기사를 보면, ST에서는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를 칭하는 호칭이 Ashley Judd와 Judd가 혼용돼 쓰이고 있는데 번역된 TT 기사에서는 일관적으로 ‘애슐리 주드’로 풀네임으로 쓰였다. 주드라는 성(性)만 번역했을 경우, ‘주드 로’ 등 다른 할리우드 유명 배우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애슐리 주드’로 번역해 통일성을 유지하는 번역 현상이 관찰된다.

### 2.2.2. 심층결속

지금까지 모호하거나 다양한 지시명사나 호칭, 직함이 통일되고 명시적으로 번역됨으로써,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TT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서의 표층결속 기제를 살펴봤다. 여기서 TT 시청자의 텍스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심층결속성의 번역 전략을 살펴본다. 표층결속성과 심층결속성은 텍스트를 조직하고 관계 짓는 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표층결속성은 심층결속성의 겉으로 드러나는 개념관계를 명료하게 해주는 기제인 명시화 장치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심층결속성은 TT 독자/시청자의 경험, 지식과 관련 있으며, 본인과 익숙한 세계와 텍스트를 연관시켜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번역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원천 텍스트 자체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문화, 혹은 문화 하위집단의 구성원이며 그 문화에서 발전시킨 지식과 판단과 인식의 집합체를 갖춘 독자에게 해당 번역 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Snell-Hornby 42)

여기서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함축이 심층결속의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다. 함축이란 실제로 말하는 것 이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문어보다 구어, 즉 문자보다는 소리 텍스트에서 그라이스(Grice)가 제시한 함축 이론은 소리를 번역하는 번역가에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번역 전략이 된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담화의 네 가지 중요한 협조의 격률, 즉 양(quantity), 질(quality), 관련성(relevance), 방법(manner)이 번역전략으로써의 함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함축을 이끌어내는 맥락과 텍스트의 특징은 언어, 문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텍스트라는 장르적 특징까지 고려한 협조의 수준, 즉 적정한 함축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번역가의 몫이다. 멀티미디어 텍스트는 이미지와 소리라는 비언어적 정보가 함께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자 텍스트에 수반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설명이 상당 부분 생략되고, 간결화, 명료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For two days, Londoners have wondered what the strange aroma in the air is. Clearly, they're not accustomed to the rural practice of muck spreading. (출처: 2008. 4. 21 CNN International News)

네덜란드 정부가 동절기 퇴비 살포를 금지하는 바람에 봄에 대대적으로 퇴비 살포가 이뤄지는데 그 때 봄에 부는 동풍을 타고 퇴비 냄새가 유럽 중부와 런던까지 날아드는 것을 보도한 2008년도 4월 CNN 뉴스 기사의 내용이다. ST의 첫 번째 문장, ‘런던 시민들이 이상한 냄새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와 두 번째 문장, ‘분명히 그들은 농촌의 퇴비 살포에 익숙치 않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은 청자/시청자가 공유하는 경험과 지식에 미루어 ‘그 이상한 냄새가 퇴비 냄새이겠구나’를 추론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TT로 번역될 때 그 함축이 명시화, 간결화, 명료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ST의 함축이 TT에서는 ‘런던 시민들은 지난 이틀간, 도시를 감싼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궁금해 하고 있다. 원인은 바로 퇴비!’로 번역됐다.<sup>5)</sup> 보도 기사의 특성상 사회적·문화적 문맥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미디어 텍스트인 TV 뉴스의 번역은 오해와 혼동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전달과 소통기능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movie's president, Michael Douglas, eventually settles down with his new girlfriend, but then that's Hollywood. In real life, not even Sarkozy's mother thinks that will happen.(출처: 2007. 12. 26 CNN International News)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혼 직후 카를라 브루니라는 모델 출신 가수 와 염문을 뿌리며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을 때 프랑스인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ST에서 첫 번째 문장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프레지던트>에서는 대통령이 여자 친구와 이어졌다’, 두 번째 문장 ‘실제로는 사르코지의 모친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의미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사르코지와 브루니 커플이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사르코지의 모친의 반대가 있다는 점이 함축되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 Of her son, she said, "In his position, he's spoiled for choice. I hope no one will think of marriage. I've had enough of brides."- 에

5) YTN 위성통역실 번역 참고

인터넷 주소 : [http://ytn.co.kr/article/0401\\_list.php](http://ytn.co.kr/article/0401_list.php)

서 ST에서 함축되는 정보가 더욱 구체화된다. 따라서 ST에 함축된 모친의 반대 의미가 TT 번역에서는 - ‘영화 속 대통령은 여자 친구와 백년해로하지만, 그건 할리우드 애깁니다. 실제로는 사르코지의 모친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위치를 고려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또 다시 며느리를 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명료화, 구체화, 명시화됐다.

번역을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의 표층구조와 형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층구조 이면에는 심층구조, 즉 의미가 존재하고, 바로 그 의미가 목표 텍스트로 번역하는 기본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짧은 보도 텍스트일 경우에는 명료성과 경제성이 더욱 요구되며 논리적인 언어장치들이 집약적으로 사용된다. 텍스트는 저자와 독자, 혹은 화자와 청자 간에 일어나는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해당 언어의 특징이나 문화적 정보 공유로 인해 특정 정보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 역시 ST가 의도한 전체 의사소통의 일부이므로 경우에 따라 번역가는 이런 의미를 정확히 명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2.3. 전달성 (Presentability)

멀티미디어 텍스트,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TV 뉴스 텍스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달성이 좋아야 한다. 번역가의 시사, 문화, 언어적 배경 지식에 덧붙여 ST의 표층결속과 심층결속 장치를 찾아내고 함축을 파악해 명시화는 작업 외에 수용자(receptor)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달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ST를 TT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전략에 대해 논했지만 지금부터는 TT로 번역해 오디오텍스트, 즉 더빙이나 보이스오버로 또 한 번의 미디어 전환이 일어날 때에 초점을 맞춰 번역가가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 2.3.1. 일관성

TT의 전달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앞서 2.2.1. 표층결속에서 살펴봤듯이 지시명사와 호칭, 지명을 일관성있게,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ST의 공지시(co-reference)를 이용한 간단한 표층결속 관계라도 ST와 TT 시청자/독자

의 기존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그대로 번역한다면 텍스트의 결집성과 응집력을 훼손하고, 그 결과 TT 수용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는 전달력이 떨어진다. 앞서 사례연구에서 예로 들었듯이, ST에서는 Downing Street 와 No. 10이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뚜렷한 표층결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공관이 늘어선 다우닝 가의 10번지가 총리 공관을 의미하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우닝 가 10번지에 총리공관이 위치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번역하면서 ST에서 의도한 공지시를 모든 TT 수용자가 성공적으로 해석할 만큼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총리 공관’이라고 일관되게 반복함으로써 뚜렷한 텍스트의 결속성과 이해력, 전달력을 높이는 번역 현상이 관찰된다.

### 2.3.2. 대표성

TV 뉴스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인 명료함과 간결함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표성을 띤 상위항목이나, 혹은 인지도가 더 높은 지시사로 번역하는 전략으로 확보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Barak Obama와 Hilary Clinton의 예비경선과 대선 결과 예측 기사의 번역을 보면, ST 뉴스에서는 Barak, Obama, Senator Obama, 혹은 Hilary, Mrs. Clinton, Senator Clinton 등이 혼재돼 사용되지만 TT에서는 한쪽은 성(性)인 오바마로 한쪽은 이름인 힐러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08년 4월 현재 구글에서 ‘오바마와 힐러리’로 검색해봤더니 웹 검색 개수가 1,330,000였지만, ‘오바마와 클린턴’으로 검색하면 439,000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바마와 클린턴’을 검색한 경우에도,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처럼 ‘힐러리 클린턴’으로 이름과 성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관찰됐다. 이는 배럭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성을 따서 오바마 후보와 클린턴 후보로 번역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ST에서처럼 Mrs.나 Senator라는 분명히 구별될만한 호칭이 없고, 대명사 she나 her을 사용하는 ST의 언어적 특성에서 성별을 유추하기도 힘들고, 또 미국 대선에 관심이 없는 TT 수용자를 위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단순히 클린턴 후보라고 번역했을 경우, 남편 ‘빌 클린턴’이 가지는 대표성이 더 크기 때문에 텍스

트 이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와 TT의 문화적 차이로 대표성이 달라지는 것도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원천텍스트인 영어가 텍스트와 사실,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저도문맥소통(Low Context Communication: LCC)<sup>6)</sup>에 가까운 반면, 문맥과 관계, 간접적 소통을 선호하는 고도문맥소통(High Context Communication: HCC)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표텍스트인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언어적 간극이 생기게 되고 그걸 매우는 일은 번역가의 몫이다. LCC와 HCC의 차이는 주소를 적을 때도 차이를 보인다. HCC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실 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과 사실에 영향을 받을 관계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이며, 그런 사고가 언어 습관으로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쏠쏠하게 엮인 HCC에서 국가, 도시, 지역 순으로 주소를 적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보다는 ‘나’, ‘당신’, ‘그’의 개체를 중시하는 LCC에서는 지역, 도시, 국가 순으로 주소를 적어나간다. 이는 뉴스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본 연구 앞에서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봤듯이, 각국의 수도명으로 국가를 대신하는 것, 단체나 정당,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가 대표하는 단체나 정당, 정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체, 관계, 집단을 중시하는 HCC의 TT로 번역할 때는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하는 단체나 조직의 대표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체나 조직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텍스트의 이해도를 함양할 수 있다.

The US has condemned police action against Mr. Tsvangirai and his followers as "ruthless and repressive"...

(출처: 2007. 3. 15 The Independent.)

여기서 Mr. Tsvangirai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야당, 민주변화동맹(MDC)의 당수이자 대선 후보를 의미하는데, ‘창기라이 당수와 그의 지지자’는 창기라이 당수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사가 아니라면 ‘짐바브웨 야당 인사에 대한’ 혹은

---

6) 데이빗 카탄(David Katan)은 그의 저서 <문화 번역> (179)에서 Hall의 Contexting 개념을 HCC (High Context Communication)와 LCC (Low Context Communication)으로 나누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했다.

‘야당 탄압’으로 단체와 집단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 TT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번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LCC와 HCC 수용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생긴 대표성의 차이가 주제의 흐름 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탄압에 관한 주제에서 ‘창기라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거명됐을 때 TT 수용자는 주제의 초점이 야당이라는 집단이 아닌 창기라이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탄압이나 개별적인 사건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두 문화가 가지는 다른 대표성의 간극을 찾아내지 못한 채 번역한다면 ST의 주제를 흐리고, ST 수용자의 주의를 흐트려 이해도를 낮추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 2.3.3. 용인성

멀티미디어 번역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전략으로 수용자의 일관성, 대표성을 꼽을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TV 뉴스라는 미디어 장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용인성<sup>7)</sup>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과 TV, 영화 등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이 활자와 신문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고 그 만큼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용인성이 다른 장르보다 까다롭게 책정돼있는 편이다. 지방색 짙은 사투리와 억양, 심한 욕설과 농담, 저급한 은어 등은 자체 검열되거나, 각 관련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김구철의 ‘철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1988)과 이주행도 ‘방송화법’ (1999)에서 TV 뉴스 언어 지침으로 간결성, 정확성과 더불어 품위성을 꼽았다. 물론 원천텍스트의 뉴스 역시 보도 지침에 맞추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목표텍스트인 한국어 TV 뉴스는 영어권에서보다 높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 기대, 그리

7) 여기서의 용인성은 de Beaugrand and Dressler(1981)의 ‘용인성(acceptability)’이 아닌 Toury(1997)의 ‘용인성(acceptability)’의 개념이다. Since 1989 Toury's distinction is widely accepted between adequacy principle and acceptability principle ("If the principle or norm of adequacy is applied, a translator concentrates on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 its language, its style and its specific culture-bound elements. If the principle of acceptability prevails, the translator's aim is to produce a comprehensible text in which language and style are fully in accordance with the target culture's linguistic and literary conventions. The two principles do not exclude each other: a translator may pursue both norms at the same time.

고 검양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더욱 공손하고, 문어적이고, 격식성이 높은 어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ST에서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번역자의 개입, 즉 ST에서 정제되지 않은 어휘를 삭제한다던가, 아니면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현상을 통해, 번역자가 일종의 검열자, 언어 순화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번역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영화, 연극, 뮤지컬, 홍보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텍스트 중에서 TV 뉴스 번역에 초점을 맞춰 소리와 이미지가 동반되는 ST의 번역이 활자화된 문자 텍스트와의 번역 전략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문자가 아닌 소리를 듣고서 번역할 때 필수 전제 조건은 번역가의 청취력과 배경지식이다. 번역가는 뉴스 시청자들의 지적 수준과 이해도를 고려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유명사와 속담, 관용표현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아야 하고, 문맥 안에 제대로 풀어내는 것도 역시 번역가의 몫이다. 배경지식으로 ST의 주제와 문맥을 파악한 이후 번역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텍스트의 결집성을 높이기 위한 표층결속장치이고, 번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ST에 사용된 다양한 지시명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일한 지시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동일하고 일관되게 번역해, 주제의 일관성과 논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ST 심층결속성의 장치인 함축을 번역할 때는, 그 함축을 이끌어내는 맥락과 텍스트의 특징과 언어, 문화, 상황을 파악해 멀티미디어 텍스트라는 장르적 특징까지 고려한 협조의 수준을 판단해 생략, 간결화, 명시화하는 전략이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 한편, ST의 표층결속과 심층결속 장치를 찾아내고 함축을 파악해 명시화는 작업 외에 TT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달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TT의 전달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시명사와 호칭, 지명을 일관성있게,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ST의 공지시를 이용한 간단한 표층결속 관계라도 수용자의 기존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그대로 번역

한다면 텍스트의 결집성과 응집력을 훼손하고, 그 결과 TT 수용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는 전달력이 떨어진다. TV 뉴스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인 명료함과 간결함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표성을 띤 상위항목이나, 혹은 인지도가 더 높은 지시사로 번역하는 전략으로 확보된다. 이런 대표성의 간극을 찾아내지 못한 채 번역한다면 ST의 주제를 흐리고, ST 수용자의 주의를 흐트려 이해도를 낮추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그와 함께, TV 뉴스라는 미디어 장르의 특성에 따르는 용인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과 TV, 영화 등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이 활자와 신문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고 그 만큼 심한 욕설과 농담, 저급한 은어는 순화나 삭제 등의 번역 전략을 이용한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찰됐다.

### 참고문헌

- 강길호. 2001.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 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정책연구 2001-4, 방송위원회, 81-132.
- 곽성희.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번역학연구』 9:1, 282-308.
- 김구철. 1998. 『침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LG상남언론재단.
- 김원용. 1993. 『방송보도론』, 나남.
- 김윤환. 1999.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언어학」.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제 41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재원 이재근 김성찬 율김. 2001. 『사회언어학』. 박이정 (Bernard Spolsky. 1996.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
- 김혁동. 1998. 『영어뉴스 작성론』. 나남출판.
- 김효중. 1998. 『번역학』. 민음사.
- 머빈 블록/ 김혁동 율김. 2003. 『영어뉴스 사례연구』. 한울아카데미.

- 모리스 페르니에/ 김현권 노윤채 옮김. 2001. 『번역의 사회언어학적 기반』.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백선기 옮김. 2002. 『TV 뉴스 제작론』. 커뮤니케이션북스 (Ivor Yorke. 1978. Television News. Focal Press)
- 이주행. 1999. 『방송화법』. 역락.
- 임태섭. 2000. 「미디어 언어 비평- 주요 일간지에 사용된 문체 보도언어 분석」.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제 8권 1호,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118-40.
- 장복명 강혜순 김정희 옮김. 1996. 『언어와 문화』. 박이정 (Clair Kramersch. 1996.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ed. 1998.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assnett, Susan and Andre Lefevere.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 New York: Printer.
- Beaugrande, Robert and Wolfgang Dressler. 1972.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Blackwell.
- Bennet, Lance. 1983.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Longman.
- Biguenet, John and Rainer Schulte. eds. *The Craft of Translation*, Chicago & London: U Chicago P, 1992.
- Boyd, Andrew. 1988. *Broadcast Journalism: Techniques of Radio and Television News*, Focal P.
- Brown, Gillian & Yule, Georg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UP.
- Halliday, M.A.K and Martin, J.R.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Batsford Academic, 1981.
- Katan, David. 1999. *Translating Cultures*, Manchester: St. Jerome.
- Lewis, Carolyn Diana. 1984. *Reporting for Televis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
- Maier, Carol. ed. "Evaluation and Translation", *The Translator* Vol. 6 No.2, 2002.

- Mencher, Melvin. 1996. *Basic Media Writing*, Brown & Benchmark.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hoenix Elt.
- Nord, Christiane.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Atlanta: Rodopi.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 Pinker, Steven. 1999. *Words and Rules*, New York: Perennial.
- Robinson, Douglas. 1997. *Translation and Empire*, Manchester: St. Jerome.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uttleworth Mark &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Routledge.
- Toury, G. 1977. *Translational Norms and Literary Translation into Hebrew*,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Tel Aviv University.
- Venuti, Lawrence. 1994.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 Study of Translating Sound and Image  
-Case Study Focusing on TV News Text**

Lee, Jiyeon

(Ehw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s the demand on translating films, musicals, and other TV programs has been increasingly high, this study aims to find viable, if not best strategies for translating multimedia text, which includes sound and image as well as written texts. Translation process of audio-video text, especially TV broadcasting news has been reviewed closely. The study found out 3 major factors in translating audio-visual TV news text into TT, which are translators' knowledge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and presentability of text. Translators are supposed to have no problem in catching any unfamiliar proper noun and idioms in ST, or at least have the ability to look it up dictionary either online or offline. And they must have a wide range of knowledge of ST's social, cultural, political background in order to get the whole ideas right and make knowledgeable decisions whether to translate or not, whether to rewrite a certain part of ST, otherwise it may cause unnecessary distraction and confusion to TT receptors. A good translation is to produce TT, clear, specific, and most of all, easy to understand, for which cohesion and coherence also play a pivotal role. Co-reference which comes in various forms in ST should be shifted in consistent and uniform manners. At the same time implicated meanings in ST are better to be clearly stated or specified since people from two different language groups apply different set of values, norm, and experiences in their discourse. And then there comes this presentability factor, no less important than the other 2

factors. To make TT presentable up to the standard as TV news media requires, translation should be consistent in references, names, social positions. And that comes with representability as part of contexting and acceptability as part of social responsibility that mass media is expected to take.

▶ Key Words: strategies for translating, translating audio-visual TV news text, knowlegeability, understandability, presentability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겸임교수/ YTN 동시통역사

cafe4u@hanmail.net

관심분야: 미디어 통역 및 번역, 실무 통역

논문투고일: 2008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